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27	03. 06	03. 13
대 표 기 도	김민혜 성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민혜 성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 2월 축복인사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성도 간에) 년 최고야 힘내!(자신에게)
- 공동의회 - 예배 후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 재외국민투표 - 대통령 선거(2월23~28일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신분증 지참)
- 코로나 대응 - 규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Luca 확인)
교회 내 교제가 제한되고 있으나 성도 간 격려와 돌봄에 힘써 주십시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만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강희수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38 : 22 - 26(구p60)..... 강희수 성도
 (1.Mose 38:22-26)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지켜야 할 양심!.....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Gemeinde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세례교인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민혜 성도

† 기도제목

1.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와 한국의 대선을 위해(3월 9일 투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누룩 같은 인생

Benjamin Warfield는 조직신학자로서 34년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으며,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1876년 결혼해 신혼여행으로 독일 선교를 갔다가 아내가 풍랑에 벼락을 맞아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39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아내를 돌보느라 하루 두 시간 이상 외출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1915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1921년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에는 화려한 결말이 없습니다. 다만 39년간 한결같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인내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해서 부풀어 오르면 전혀 다른 성질의 빵으로 변해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와 누룩을 넣은 밀가루는 눈으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 발효가 되어서야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천국은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누룩처럼 드러나지 않고 주목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바뀌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라 /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담임)

*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소를 둔 사람은 의로 가득 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 William Gurnall(영국 청교도 목사, 1616~1679)